

뉴질랜드를 완벽히 즐기는 여행



Hooker Valley Track
Aoraki Mt Cook National Park

12일 동안 뉴질랜드 북섬에서 남섬으로 여행하며 잊지 못할 경이로운 자연과 활기찬 문화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음식과 와인을 경험해 보세요.

100% PURE NEW ZEALAND
newzealand.com

뉴질랜드를 완벽히 즐기는 여행



Hooker Valley Track
Aoraki Mt Cook National Park

100% PURE NEW ZEALAND
newzealand.com

12일 동안 뉴질랜드 북섬에서 남섬으로 여행하며 잊지 못할 경이로운 자연과 활기찬 문화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음식과 와인을 경험해 보세요.

제1-2일: 오클랜드

오클랜드는 활기찬 다문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뉴질랜드 최대의 도시입니다. 반짝이는 와이테마타 항만을 내려다보며 독특한 현지 요리를 맛보고 공연을 관람합니다. 와이헤케섬에 위치한 와이너리와 수제 맥주 및 증류주 양조장에서 시음을 즐기고, 랑기토섬의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합니다. 거친 서해안의 검은 모래 해변에서 바다 공기를 마시고 주변의 숲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제3-4일: 로토루아

경이로운 지열의 도시 로토루아에서 수 대에 걸쳐 이곳에서 살아온 마오리족의 환대를 경험합니다. 마라에(marae, 마오리 집회장)에서 마오리족의 이야기를 듣고, 현지 조각가가 나무, 돌, 뼈를 보물로 탈바꿈 시키는 모습을 관람합니다.

끓어오르는 머드와 증기가 솟는 온천 그리고 솟구치는 간헐천 등 신기한 현상들을 감상한 후, 호숫가의 온천에서 지친 심신에 활력을 주는 미네랄 온천욕을 즐기고, 지열 머드 온천에서 고대의 치유 효과를 누리 봅니다.

제5-6일: 혹스베이

혹스베이는 뉴질랜드에서 와인과 음식으로 가장 손꼽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자전거 투어 또는 고급 버스 투어에 참여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을 시음해 봅니다. 네이퍼 거리의 아르데코 기원에 대해 알아보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파머스 마켓에서 커피와 갓 구운 빵을 먹으며 현지인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장관을 이루는 케이프키드내퍼스에서 개닛새를 관찰하는 투어(9월부터 5월까지 운영)도 추천합니다.

제7일: 웰링턴

국내선을 타고 골목골목마다 커피와 수제 맥주 그리고 현지 예술품으로 가득한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으로 이동합니다. 뉴질랜드 국립박물관 테파파통가레와에서 투어에 참가해 해설을 들으며 전시품을 관람하고, 와이탕이 조약 원본이 전시돼 있는 국립 도서관을 방문합니다. 카피티섬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키위새와 다른 토종 야생 동물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 체험도 추천합니다. 인터아일랜드 페리를 타고 장관을 이루는 풍경을 감상하며 국 해협을 건너 남섬의 꼭대기에 위치한 픽턴까지 여행합니다.

제8일: 픽턴 - 크라이스트처치

뉴질랜드의 위대한 여정 중 하나인 코스털 퍼시픽 해안 관광 열차를 타고 픽턴에서 크라이스트처치까지 이동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뉴질랜드의 유명한 소비농 불량 산지인 말버러 지방의 포도원을 방문하고, 카이코우라에서 고래, 돌고래, 물개, 앨버트로스 등 놀라운 해양 생물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9-10일: 크라이스트처치/아카로아

활기를 되찾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부티크와 음식점 그리고 길모퉁이마다 숨어 있는 거리 예술을 즐깁니다. 크라이스트처치 곤돌라를 타고 언덕을 오르며 눈앞에 펼쳐진 캔터베리 평원을 감상하고, 크루즈 또는 카약을 타고 펭귄과 물개 그리고 멸종위기종인 핵터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프랑스풍의 마을 아카로아를 여행하며 예술적 분위기를 만끽합니다.

제11일: 아오라키 마운트쿡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인 아오라키 마운트쿡은 장엄한 풍경을 선사합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경치를 즐기거나, 쉬운 고산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출렁다리를 건너고 빙하를 감상합니다. 글레이셔 익스플로러스 투어에 참가하면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뉴질랜드 최대의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빙산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12일: 퀸스타운/애로우타운

멋진 리조트 타운인 퀸스타운에서 여행의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런치투어 또는 와인투어에 참여하여 센트럴 오타고 최고의 맛을 즐기고, 인근의 유서 깊은 금광 마을인 애로우타운에서 부티크와 미술관을 둘러 봅니다.

